

# 오늘은 나병이 격리되던 시대와는 다르다

신동식 / 서울신문사 논설위원

**하**센씨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나(癩) 예방법이 곧 폐기된다. 세상과 단절시켰던 섬지역 나환자 요양소도 문닫고 기념관을 두어 관광지화 한다고 한다. 살아남은 자유자들은 자유로이 고향으로 가든지 가족, 친지를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센씨병을 공포의 병으로 규정, 환자들을 강제 격리토록 했던 법제정(1907년) 이후 88년만의 일이다. 현재 남아있는 수용자들은 거의가 평균 70세 이상이라 한다. 회복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의가 시각장애, 수족변형 등 갖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찾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 수용소 내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자식을 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당시 요양소측은 소내 결혼을 허가하지는 했으나 단종시술을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친지

들은 있어도 요양소 입소 후 연락을 가지지 않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쪽에서 수소문하는 엄두를 내지 못해 갈 데가 없게 된 것이다. 일본도 집안에서 나병자가 발견되면 절대 비밀로 하고 당사자가 요양소에 들어갈 때도 변성명하도록 한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한다. 고령자들에게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가 드물고 형제간에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아 바깥 세상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다. 어쩌다가 형제 중 요양소에 들어간 형이나 동생이 있는 사실을 안다해도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혹시나 일상에 피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오라는 친지가 없는 것이다. 최근 일본 신문 지상에 보도된 한 고령 나환치유자는 가족이 많은 고뇌 끝에 혈육으로 인지하는 용단을 내었으나 죽어서도 요양소 남몰당에 묻히기를 택했다고 한다. 평생 밖을 보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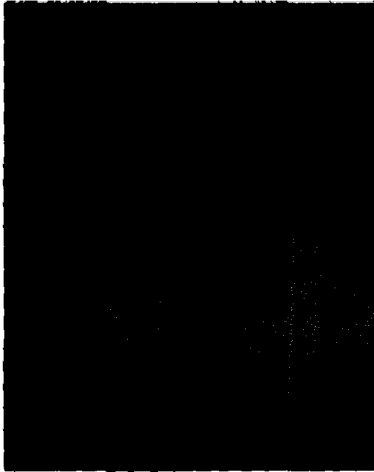
고 한 많은 생을 보낸 요양소 내 사망자 3천 2백명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한다.

우리도 나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방 후 미국으로부터 치료약이 들어와 치료되고, 나병이 불치병이나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발표되기까지는 이 병자에 대한 세태는 너무도 냉혹했다. 병자를 꺼리는 것이나 집안에서 환자를 격리 요양소로 보낸 후는 변성명을 하고 집을 옮기면서까지 단절하는 예가 많았다. 나환자가 많이 발생하던 교장에서는 환자가족뿐 아니라 마을 주민 거의가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세태도 있었다. 60년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자마자 서둘러 귀국하여 고향 가족을 찾았던 한 재일교포 나환치유 노인은 끝내 가족들이 외면하여 눈물 속에 일본 요양소로 돌아가고 말았다. 노인은 학생으로 일본에 갔다가 나환이 발병했고 일본법에 따라 요양소에 수

용되어 밖에 나오지 못했다. 오랜 세월 어머니와 형제 고향을 그리며 한을 달랬던 것이다. 그간 요양소에서 일하며 아껴 모은 상당액을 고향 식구들에게 준다며 들고 나왔으나 수소문 끝에 겨우 소재를 확인한 조카들이 친지가 아니라고 외면했다. 조카들 성씨도 달랐다.

서울에서는 70년대 초반까지 봄철 징병검사때나 사창가에서 나환자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징병검사자들은 가족에게 통고되고 보건기관 지급약으로 조기치유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창가나 유흥업소 여성들은 나환이 확인된 후 아무도 모르게 잠적해 버리는 것이 상례였다. 보건요원이 추적한다해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에는 조기치료 기회를 놓치고 고칠 수 있는 병을 악화시켜 외모에 그 병자임이 확연해져서야 다시 발견되어 수용치료하는 바람에 세상을 등지고 마는 예가 많았다.

한국은 나병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도 일찍이 개방치료로 나갔다. 60년대 초반에 나병을 피부전염병으로 규정, 격리치료제를 없애고 일반 병원에서도 치료토록 했다. 음성나환자 정착촌을 만들어 자유로이 생업을 하도록 하고 아이들도 일반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병자가 거론되는 일은 없다. 발병해도 거의 조기치료되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에이즈 감염자들이 감염사실 확인과 함께 잠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특히 유흥업소나 운락가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잠적해 버려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 본인 이야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해 잠적한다해도 가족들까지 그 행방을 감추려 드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 초기 나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나병을 천형으로 한탄하며 감추고 숨고하여 병을 키우고 생을 황폐화시키던 우를 에이즈 감염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염려된다. 감염자 본인은 당황한다 해도 가족들이 냉정을 잃고 감추기만 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가족이 그 감염자를 붙들고 보호하지 않으면 병자를 고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오늘은 나병이 격리되던 시대와는 아주 다르다. 약학과 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나병치료약이 나오기까지는 몇 세기가 걸렸으나 에이즈 치료약 개발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좀더 면역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부축하는 일이 가족들의 사명이다. 혹시 가족들이 없는 경우 도움이 필요한 감염자에게는 에이즈 관련 사회단체나 지역보건소에서 그런 일을 거들 수 있을 것이다. 감염자가 잠적하여 병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감염자 자신에게도 단 한 번뿐인 생을 그렇게 암울하게 파탄시키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들이 부담없이 사실을 밝히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숨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한다는 확신을 갖게 할 방도를 연구해내야 한다. 나타나서 보호받고 미구에는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이 병에 대한 계몽교육을 강화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하고 감염자나 환자를 경원하지 않는 사회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에이즈 단체의 홍보, 교육, 환자발견과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구라(救難) 사업이 많은 재정과 인력투입, 교육, 홍보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정부 사회적인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